

‘10홈런’ 라모스 ‘44안타’ 호미페 ‘0점대’ 구창모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

라모스, 23경기만에 10홈런 괴력
페르난데스, 타율·안타 선두 질주
구창모, ERA 0.51 언터처블 활약



LG 라모스

두산 페르난데스

NC 구창모

2020시즌 KBO리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5월 5일 뒤늦게 개막했다. 이에 따른 컨디션 관리는 초반 레이스의 최대 변수였다. 따라서 화려한 5월을 보낸 선수들은 그만큼 컨디션을 잘 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G 트윈스 로베르토 라모스(26), 두산 베어스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32), NC 다이노스 구창모(23)야말로 누구보다 화려한 5월을 보낸 이들이다. 특히 라모스와 페르난데스의 선전은 더 놀랍다. 타격에는 오르내림이 있다는 야구계 속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5월 내내 꾸준한 타격감을 뽐냈기 때문이다.

라모스는 2주간의 자가격리 여파로 팀간 연습경기 때는 5게임 타율

0.200(15타수 3안타)에 홈런 없이 3타점으로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정규시즌에 들어서니 가공할 장타력을 뽐내고 있다. 5월 23경기에서 타율 0.375(80타수 30안타), 10홈런, 21타점에 출루율 0.451로 맹위를 떨쳤다. 출루율과 장타율(0.813)을 더한 OPS는 1.264(1위)에 달하고, 득점권 타율도 0.350(20타수 7안타)으로 찬스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류중일 LG 감독은 애초 라모스의 기대치를 “30홈런”이라고 잘라 말했는데,

지금의 페이스대로라면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모스는 “전력분석팀의 자료는 물론 코치들과 통역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 팀의 승리에 공헌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하다”고 밝혔다. 책임감도 만점이다.

2019시즌 최다안타 타이틀(197개)을 차지했던 페르난데스는 올해도 변함없는 타격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다. 23경기에서 타율 0.468(94타수 44안타), 4홈런, 23타점, OPS 1.191의 성적을 거뒀다. 타율과 안타는 리그 1위, 타점과 OP

S는 2위다. 44안타는 2018년 6월 두산 김재환의 46안타에 이어 역대 월간 최다 안타 공동 2위의 기록이다. 1997년 6월 한화 이글스 강석천, 1999년 5월과 6월 LG 트윈스 이병규(현 타격코치), 2009년 8월 롯데 자이언츠 홍성흔도 월간 44안타를 쳤다. 지난해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됐던 몸쪽 높은 공 대처법을 터득한 뒤로는 상대의 수비시프트까지 무력화했다. 안타의 코스도 왼쪽 11개, 가운데 16개, 오른쪽 17개로 다양하다.

구창모는 5월을 지배한 투수였다. 5경기에서 4승무패, 평균자책점(ERA) 0.51, 피안타율 0.105, 이닝당 출루허용(WHIP) 0.60의 완벽한 투구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극찬을 받았다. 최고 구속 150km의 빠른 공을 지닌 데다 좌완임에도 포크볼 구사에 능해 상대 타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2019시즌 데뷔 첫 10승을 거두며 선발진에 안착했는데, 올 시즌을 통해 소속팀을 넘어 리그 대표 에이스로 도약할 태세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유영준 NC 2군 감독

‘2군도 12연승’ 신바람 공룡군단

NC 2군, 퓨처스리그 최다 연승 기록 타이
젊은 선수 위주로 기용…“이기는 맛 느껴”

현재와 미래 모두 잡고 있다. NC 다이노스의 2020년은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가는 초석을 닦기에 부족함이 없다. 1군이 KBO리그 초반 파죽지세로 승수를 쌓아가는 가운데 C팀(2군)도 퓨처스리그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NC는 5월 23경기에서 18승5패(승률 0.783)를 기록했다. 첫 20경기에서 17승3패(승률 0.850)를 거뒀던 28년 묵은 개막 20경기 최고승률 기록(중전 1992년 빙그레 이글스·0.842)을 갈아 치웠다. 2위 LG 트윈스와 2경기차로 근소하지만, 3위 두산 베어스와는 4경기까지 벌려놓았다.

단순히 ‘윈 나우’가 아니다. 미래자원들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군은 5월 31일 악산 KT 위즈전에서 7-5로 이겨 12연승을 달리며 2012년 상무 야구단이 작성한 퓨처스리그 팀 최다연승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2일 합평 KIA 타이거즈전까지 승리한다면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물론 2군 경기의 승패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일부 구단은 2군 성적을 내기 위해 20대 후반~30대 초반의 1.5군 선수들을 라인업에 잔뜩 포함시킨다. 하지만 NC는 C팀에 오롯이 미래자원 위주의 기용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1군 창원NC파크와 2군 마산구장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도보 5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동용 NC 감독은 1·2군이 나란히 홈경기일 때 꾸준히 ‘잠행’에 나선다. 육성팀에서 꾸준히 리포트를 올리지만,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과 차이는 분명하다.

2군의 지향점이 같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키운다. 유영준 C팀 감독은 1일 전화통화에서 “눈앞의 1승을 위해 베테랑 선수들을 승부처에 쓰는 건 지양하고 있다. 지더라도 젊은 선수들의 경험을 쌓게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그들이 이기는 맛까지 느끼는 중”이라고 밝혔다. NC 구단 관계자도 “이동용 감독님이 자주 경기장(마산구장)을 찾고, 실제로 괜찮은 선수들을 꾸준히 풀업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선수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경쟁의식이 퍼져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올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타자전향에 나선 박준영은 타율 0.369로 남부리그 1위에 올라섰다. 올해 신인드래프트 2차 2라운드로 입단한 외야수 박지환도 타율 0.333, 16타점을 기록 중이다. 투수진에서도 박지환(2경기 1승·평균자책점 1.00), 배민서(4경기 1승·ERA 2.70) 등 젊은 선수들이 꾸준히 기회를 얻고 있다. 유 감독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투수 중엔 박지환, 야수 중엔 박준영을 눈여겨봐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C 구성원 모두는 시즌이 개막하기도 전부터 “올해는 대권에 도전할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개막 직후부터 파죽지세로 달리며 이런 기대가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에만 목을 매 미래를 등한시하지 않고 있다. NC의 올해 도전 여부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의 ‘공룡군단’은 지속 가능한 강팀을 그리고 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SK는 4연승으로 5월을 마치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 한결 여유가 생긴 SK는 부상자들이 복귀하기 전까지 백업 요원들에게 충분한 경험치를 부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5월 31일 인천 한화전에서 승리한 뒤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SK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사진제공 | SK 와이번스

“4연승으로 만족 못해”…SK ‘승리조 찾기’는 계속

최정 부활·이건욱 등 가능성 입증
염경엽 감독 “마운드 새 얼굴 필요”

4연승을 내달리며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활기찬 분위기로 6월을 맞은 SK 와이번스는 베스트 전력을 완성하기에 앞서 충분한 백업 플랜을 마련해두려는 의지가 강하다.

극심한 타격 슬럼프를 떨쳐냈다. 정상 컨디션을 되찾은 3번타자 최정의 역할이 크다. 4연승 기간 중 최정이 14타수 6안타 1홈런 7타점으로 해결사 뒀을 충실해 해내자 타선의 응징력도 함께 높아졌다.

여기에 5월 29일 두산 베어스와 2대2 트레이드로 데려온 포수 이흥련이 공수양면

에서 힘을 보태줘 SK는 최하위에서 한 계단 올라선 9위(7승16패)로 5월을 마칠 수 있었다.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 팀을 짓누르던 부담감이 사라지면서 선수단의 움직임은 부쩍 자유로워졌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름의 수확도 있었다. 신인 외야수 최지훈(타율 0.333), 좌완 필승조 김경민(12경기 무자책점), 선발 이진욱(평균자책점 1.04·1승) 등의 유망주들이 전력공백의 곳곳을 메우며 가능성을 입증했다.

SK 염경엽 감독 역시 어린 선수들의 활

약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외인 에이스 닉 킹엄(팔꿈치)과 외야수 고종욱(발목), 한동민(장갑), 주전 포수 이재원(엄지손가락)이 부상을 털고 돌아오기까지 백업 요원들에게 충분한 경험치를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염 감독은 “플랜B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놓으면 긴 시즌 안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해줘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마운드 쪽에서 최대한 다양한 카드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킹엄의 복귀시점이 명확치 않은 가운데 대체선발로

나서는 이진욱이 꾸준히 로테이션을 소화해준다면 향후 선발진 운용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2군에서 재경비를 마치고 5월 30일 1군에 돌아온 좌완 김택형도 기록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염 감독은 “승리조를 한 명이라도 더 찾고, 중간에서 확실한 투수를 한 명 더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선발에서도 (이)진욱을 새로운 카드로 만들어놓으면 킹엄이 돌아왔을 때 투수 전력에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대원 기자 seody3062@donga.com

일부 ML 구단주 “무관중? 시즌 포기가 낫다”

운영비용 절감 대안으로 떠올라
사무국-선수노조 협상도 평행선

미국 메이저리그(ML)가 7월초 개막을 목표로 물밑에서 치열히 교섭 중이다. 그러나 일부 구단주들은 ‘시즌 포기’ 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ESPN은 1일(한국시간) “몇몇 ML 구단주는 2020시즌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무관중 개막이 유력한 상황인데,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아예 시즌을 치르지 않는 게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ML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기존 일정의 절반 수준인 팀당 82경기 체제로 7월초 개막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양측은 이미 경기수에 비해 연봉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82경기 시즌일 경우 중전 연봉의 절반만 받는다. 그러나 사무국이 여기서 추

가사감을 요구했다. 무관중으로 인해 입장 수입 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선수노조는 경기수를 100경기 이상 늘려 연봉 전액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이다.

만약 시즌을 포기한다면 경기장 운영비부터 인건비까지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부 구단의 시즌 포기 카드 검토 배경은 결국 비용절감이다. 이런 뜻을 지닌 구단은 아직까지는 소수로 전해진다. 대부분의 구단들은 여전히 시즌 개막을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당장의 한 시즌 수지타산만 계산한다면 손해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ESPN

역시 “만약 구단과 선수노조가 2020시즌 진행 불가에 합의한다면 야구는 팬들에게 혐오 대상이 될 것이다. 소외감과 경멸을 느끼는 팬들이 과연 얼마나 남아줄까”라고 반문했다.

7월초에 개막하려면 6월 중순까지는 스프링캠프를 다시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6월초 안에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협상을 마쳐야 한다. ESPN에 따르면 1차 협상 마감일은 2일이다. 현재로서는 6일부터 9일까지 2차 협상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할 분위기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